

# “아시아 영재 키워 평화 주춧돌 놓는다”

### 외교관 출신 유명학교수 21년의 꿈 이뤄

가톨릭 사제를 꿈꿨던 신학도, 외교관 시속협력과 함께 시작한 외교관생활, 고려대 법대 교수·학장, 그리고 동아사이 인재들을 모아 가르치는 총장.

대학원 대학인 국제법률경영대학원(tbu.ac.kr)의 유명화(柳亨華·56)총장은 그의 이력만큼이나 다양한 경력의 학생 70명을 모아 오는 19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본관 건물에서 입학식을 연다. 중국·인도네시아·몽골·베트남·라오스·필리핀·미얀마·한국에서 법대 학부를 대부분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들이 그의 제자들이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2년 동안 영어로 공부한다. 이후 3년간은 미국 워싱턴DC 교외 40만명의 부지에 건축 중인 미국 캠퍼스에서 실무 위주의 법률 공부와 미국 변호사시험 준비를 하게 된다. 교육비는 전혀 무료다. 아시아·미국·유럽을 이어 국제법·국제기구학 등을 가르치는 3각 법률 실무교육이다.

柳총장은 “1973년부터 80년까지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애초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왔다”며 “아시아 인재들을 모아 학

계 공부하고 교류하며 뜻을 펼치도록 교육의 장을 만들겠다는 꿈이 21년 만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까지 겪어야 했던 고통은 컸다. 柳총장은 96년 개인 재산과 연구원 수익금 등을 빌

### 다국적 학생 70명 모아 국제법률경영대 개교



19일 개교하는 국제법률경영대학원의 유명화 총장이 동아사이의 인재 키우는 대학원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안성식 기자

려 30억원을 마련, 한재 학교 건물이 들어선 4만평 부지를 매입했다. 이어 대학원 신축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 내에 빌라 분양사업을 벌이다 IMF를 만나 확보한 땅마저 날릴 뻔했다.

이 와중에도 그는 군사보호구역 내에 있는 대학원 건물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군부대는 물론 시장·구청을 직접 뛰다니며 대학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마침 학습보조 제품을 제작하는 현대아이엔씨측이 대학원 설립 취지에 공감해 수백만원을 지원하면서 99년 대학원 건물의 주춧돌이 놓이게 됐다. 좌중식이 끝나자 각국에서 우수 학생을 직접 면접하고 선발하느라 아시아권역의 대학을 돌아다녔다. 강의진도 직접 영선했다. 허버드대·예일대 법과 대학원을 졸업한 미국 변호사 등 4개국 네명과 중국 법대 교수, 미국인 변호사 등 18명이 강의를 맡는다.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는 최고위과정과 기업 대상 연수사업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柳총장은 “5년 후를 지켜봐 달라”며 “졸업생들이 각국에서 동아사이 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31-963-8016.

강종훈 기자 <kanghj@joongang.co.kr>

### 무름이 어디메노



꽃집주부가 물러가고 원만한 봄날씨를 보인 14일 충북 농업기술원 시설재배단지에서 직원들이 노지 복숭아 나무보다 40여일 앞서 만개한 복숭아꽃을 인공수분하고 있다.



### ‘觀心컴퓨터’ 나온다

#### 뇌신호 컴퓨터에 전달 유령서 곧 상용화 전망

손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꿈의 기술이 현실화를 전망이다.

유럽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JRC)는 최근 인간의 사고인지(思考認知)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장애인들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시작된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비 1백60만 유로(약 18억원)를 투입했다.

그 결과 아직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사용자가 수음 등의 물리적 과정 없이 전기 헬멧을 쓰는 것만으로 자신의 생각을 컴퓨터에 전달하는 원리를 개발했고 이를 이용한 간단한 실험 등을 성공

적으로 수행했다. 사용자는 뇌신호 전달을 도와주는 헬멧 머리대 바튼 후 헬멧을 쓰고 원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화면이 단어들이 전극을 통해 컴퓨터에 전달된다.

각각의 단어들은 뇌의 각기 다른 부분에서 신호를 내보내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를 인식할 수 있다는 원리에서 만들어졌다. 다만 머리속에서 생각하는 여러 단어를 입력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등 기술적 과제는 남아있다.

마리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전국 헬멧은 2백25달러 정도면 제작이 가능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도 2천도 2000달러에 불과한 PC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안혜리 기자 <hyerec@joongang.co.kr>

### 오늘 또 황사

15일 전국적으로 황사가 찾아온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아침부터 황사현상이 발생하겠다”고 예보했다.

황음이 황사발생은 1월 2일, 3월 3~7일 등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호남 기자 <hoonam@joongang.co.kr>

**Canon**  
The best technology in print.

너만하면 최고인만큼  
유익비디오가 공짜!

# BJ 프린터로 색색 가지행운을 놓자!

졸업 입학 축하 색색 행운 축제!

LOTTE Canon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Canon BJ-3000, BJ-7000, N500

Canon 프린터의 매력

본 행사는 롯데마트 Lotte Mart 전 기점에 적용됩니다.  
사전에 롯데마트 홈페이지 http://www.lottacart.co.kr

## 항공노조, 新공항 이전 거부투쟁

### 통행료등 인하없인 경제부담 커 2,000여명 집회... “총파업도 불사”

인천국제공항 개항(29일)을 보며 앞둔 14일 항공 관련 노조가 신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을 요구하며 이전 거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노조 등 항공 관련 6개사 노동조합이 구성된 인천국제공항이전 노동조합 대책위원회는 이날 김포공항 아시아나 화물 창사 앞에서 조합

원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대책위는 “공항 이전으로 항공사 등 상주 기관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 투자 재원 확대와 신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공항

이전을 거부하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6일부터 20일까지 단위 노조별로 파업 전일 투표를 해 파업이 결정되면 다음날 초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자칫 개항 초부터 혼란이 우려된다. 대책위는 ▶통행료(6천1백원 책정) 인하▶이전 비용 지원▶배후단지 조성 방안 모색▶시설 사용자 재검토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 등을 촉구했다. 이호남 기자 <allonsy@joongang.co.kr>

### 신공항 귀빈실 의원 이용금지 철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규정을 엄수해 장관·국회의원의 공항 귀빈실 사용을 금지했다던 당초 방침을 2주 만에 풀린 철폐했다. 인천공항 강동석(姜東錫)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건설교통위 간담회에서 “인천공항 귀빈실을 지금의 김포공항 귀빈실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장관·의원의 귀빈실 이용금지 방침을 사실상 철폐했다. 인천공항 의전빌딩 개조도 14일 “장관·국회의원의 사용금지 방침은 당초 귀빈실 운영에 대한 의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의결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천공항측은 이달초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국제공항에서의 귀빈실’에 관한 규칙이 정한 요건만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갑성 기자 <kkskks@joongang.co.kr>

## 사기 30년간 9배 증가

### 99년 사건발생 173만건 법무부 범죄백서 발간

1970년에 비해 99년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4.2배,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최근 펴낸 ‘범죄 백서’에 따르면 70년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33만3천건이었는데 99년에는 1백73만2천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 범죄는 70년 3천4백건에서 99년 1만5천6백건으로 3.6배 증가했다. 또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70년 1천365건에서 99년 3천6백건으로 2.6배 늘어났다. 특히 강력 범죄는 10.6%에서 33.4%로 2.2배 가량 증가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사기·횡령·배임·절도 등 재산 관련 범죄도 급증했다. 사기는 30년 전에 비해 무려 8.8배나 늘어났으며 남의 돈을 가로채는 범죄(횡령)는 2.3배나 됐다. 특히 IMF를 겪은 98년에는 재산 범죄 발생 건수가 33만9천여건으로

97년보다 14.5% 증가, 지난 30년간 재산 범죄가 가장 많았던 해로 나타났다.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90년 전체 범죄자 가운데 9.9%에 불과했으나 99년에는 15.8%로 확대됐다. 여성 범죄자 수는 10년간 1백58% 늘어난 가운데 여성의 재산 범죄는 4백14%나 증가했다. 범죄로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들도 80년 1천5백50명에서 99년 3천1백명으로 20년 사이 2배로 늘어났다.

90년 4천2백22명인데 만약 사범은 90년 1만6백여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히로형 투여 및 판매 사범은 4배 이상 증가했다. 법무연수원측은 “인구 증가·도시화에 따라 범죄 특성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규모가 커지는 재산 범죄에 대해 수사당국이 다양한 수사 기법을 개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현 기자 <abnex@joongang.co.kr>

